

선수육성 요람 학교체육이 무너진다



〈1〉 학교 운동부의 현주소

광주·전남의 학교 체육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 한 때 1교 1종목 육성을 장려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학교 운동부의 전성기는 옛말이 됐다. 저출생 여파로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엘리트 체육의 최전선이자 선수 육성의 요람이었던 학교 체육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에 존립위기에 내몰린 학교 체육의 현주소를 조망한다.

1988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창단한 여수종고중학교 복싱부는 호남 복싱을 대표하는 팀이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소년체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전한 복싱명문이었다.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이창완이 미들급 1위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데 이어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김광종이 미들급 1위와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던 중고중학교 복싱부는 2020년 해체되면서 32년 역사를 마감했다. 광주송의과학기술 고등학교 축구부와 광주남초등학교 축구부도 2024년 팀을 해체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에서 11개 종목 학교운동부 27개(26개교, 광주 11개, 전남 16개)가 해체됐다. 이 가운데 13곳은 학교 생활체육을 접목한 클럽으로 전환돼 명맥을 잇고 있다.

‘1교 1종목’ 광주·전남 운동부 최근 5년 사이 27개 팀 해체
엘리트 체육의 최전선 사라져
초·중·고·대학 연계 육성 안 돼

우후죽순 늘었던 학교 운동부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학령(學齡)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선수로 육성할 학생이 줄면서 지도자 영입은 물론 팀 운영까지 힘들어지면서 결국 해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 부모의 복싱과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 기피 현상도 학교 운동부 몰락을 재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해체된 팀도 배구·축구·태권도·육상·소프트테니스·씨름·롤러·수영·복싱 등 비인기 종목이다.

전남도의회에서 학교 체육붕괴 우려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철 전남도 의원은 제397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6년간 전남 도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는 19.3%, 육성팀은 11.7%, 선수는 21.3%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나아가 대학교로 이어지는 선수 연계 육성이 되지 않으면 지역 선수 양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전남에 초등 복싱부는 없다. 중학교는 전남체중, 화순중이, 고등학교는 전남체고와 전남기술과학고 2곳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삼급 학교 운동부에 진학하는 선수자원이 없다보니 일부 학교 운동부는 일찌감치 타 시도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도 한다. 역으로 대부분 종목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은 고등학생 때 운동여건이 좋은 타 지

역 학교 운동부를 택하기도 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학교 체육의 한계를 지적한다.

임성호 전 여수종고 복싱부 감독은 “학교체육은 오롯이 지도자에게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동부의 존폐 여부는 지도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도자 처우 개선 없이는 학교 운동부 운영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적은 급여와 복지 혜택은 지도자를 포기하게 되는 큰 이유”라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 학교 지도자를 그만둔 이들 중 대다수가 사실 체육관을 운영한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월급은 200만원 남짓이지만 체육관에서는 최소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임전 감독 역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선수연계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지역 스포츠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로 광주지역에서 배구나 농구 등 종목에서는 출전 선수 멤버를 꾸리기 힘든 학교도 나오고 있다. 키 큰 선수가 필요한 구기 종목의 경우 학생 선수 수급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광주시교육청 학교 체육담당자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대부분 가정이 한,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힘든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면서 “10여년 전만해도 2200여명을 헤아리던 학교 운동부 선수가 현재는 1800여명대로 뚝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선수자원이 고갈되는 탓에 학교 스포츠도 학생들이 생활체육처럼 즐기는 스포츠 클럽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운동선수가 꿈인 학생을 키우는 학교 운동부는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마 대비 광주·전남 지역에 20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19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내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비탈면에 방수포를 씌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쿠폰 지급

추경 의결, 지역화폐 6000억 발행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 2000억원 세출로 추경을 편성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분석되고 있

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별로 지급금액은 차별을 뒀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6000억원이 추경에 반영돼 확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인공지능 사업과 공공배달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비용 확대와 도시철도 등 SOC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총 60여억원에 추가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이후 국회 통과 과정과 과장에서 변경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SOC 사업에 4000억원, 한국에너지공단 과대학 출연금 복원(100억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의 심사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마 시작...비 내일까지 30~80mm 내려

광주·전남에서 20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0일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며 “21일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21일까지 30~80mm, 많게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30~50mm의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전선이 동서로 길고 남북 폭이 좁게 형성된 데 따라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기보다는 강하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22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

에 걸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장마전선은 25일부터 북상해 26~27일 광주·전남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기간 중 비가 그칠 때마다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액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입학상담
☎ 062) 448-1188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진행방법** : 입학선발평가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